

세한도에 봄이 피니

무대 후면의 스크린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가 투사된다. 투사된 세한도의 영상 위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흐드러지게 봄꽃들이 점점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장중한 국악풍의 음악이 무대를 흥건하게 적시는 가운데 서서히



세한도에 봄이 드니

김민환

세한도에 봄이 드니

지은이 · 김문홍 / 펴낸이 · 김성배 / 펴낸날 · 2006년 4월 1일 초판 1쇄 발행
펴낸곳 · 도서출판 해성 / 600-013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7가 10번지 성동빌딩 3층
출판등록 · 1989년 4월 6일 제카기-117호 전화 (051)465-1329 전송 (051)465-0485
<http://www.book0485.com> / E-mail:book0485@chollian.net
김문홍©2006 Printed in Busan Korea
ISBN 89-7921-081-7

※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는 생략함

※ 이 책은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출판되었습니다.

해성

내 희곡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주기를.....

그렇다. 희곡은 태어날 때부터 문화성과 연구성의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 문화성은 탁월한데 연구성이 부족한 희곡은 연출자의 탁월한 극적 상상력에 힘입어 제대로 결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성은 탁월한데 문화성이 부족한 희곡은 연출자로서도 어떻게 손을 쓸 재간이 없다. 연구성은 연출자의 몫이지만 문화성은 전적으로 극작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곡은 연구성보다는 문화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말 그렇다. 연구는 한 번 공연되고 나면 사라져 버리는 허망한 속성을 지닌 공연예술이다. 공연은 일회성으로 사라져 버리지만 희곡은 영원히 남는다. 공연이 끝나면 희곡은 그때부터 문화성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희곡은 여러 연출자와 극단에 의해 부단히 공연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공연 텍스트로 자리 잡는다. 희곡은 만신창이가 되면 필수로 문화성과 연구성을 아우른 이상적인 공연 텍스트로 거듭나게 된다. 내가 그동안 발표한 희곡 역시 일회성의 공연으로 끝나 미완의 상태로 무대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 나는 때면 나의 희곡이 극적 상상력에 탁월한 여러 연출자들에게 의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야만 무대 위에서 제대로 된 결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희곡 「수직 환상」을 발표한 것이 1980년이었으니까 올해로 26년째이다. 한 해에 한 편 꼴로 희곡을 발표하고 공연한 셈이 된다. 부산의 한세별,

예랑, 부산무대, 세이, 예술극장, 맥, 부두연극단 등이 내 희곡에 숨결을 불어넣어 공연 텍스트로 거듭나게 해준 고마운 극단들이다. 이번 작품집에 수록된 7편의 희곡들 중 5편은 그동안 모두 공연된 작품들이다. 「교사일지」와 「사자의 편지」 두 편만이 만신창이가 되어 제대로 된 공연 텍스트로 거듭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누가 선뜻 나서줄지 자못 그 기대가 크다. 「실종」은 올해 부산연극협회가 내 회갑 기념 공연으로 공연해주겠다고, 1980년에 발표한 첫 희곡 「수직 환상」을 대폭 개작하고 재명을 바꾸어 다시 수록했다.

이제 제대로 된 희곡을 쓸 수 있을 자신감이 조금 생기는 것 같다. 이제부터는 대사를 줄이는 대신 배우의 상상력을 유발하는 마음을 강화하고, 탈사실주의적이고 시적인 작품을 써 볼 생각이다. 그동안 나의 작품이 무대 위에서 걸을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준 부산연극인들과, 팔리지도 않을 세번째 희곡집의 출간을 선뜻 허락해 준 혜성출판사 김성배 사장, 무엇보다도 나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90 중반의 어머님과 가난한 서생의 집안에 들어와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한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과 뜨거운 애정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 책을 삼가 바친다.

세한도에 봄이 드니

차례

..

책머리에 10

세한도(歲寒圖)에 봄이 드니 15

좁은이야기 59

북방한계선 107

목련꽃 그늘 아래서 153

교사일지 183

「추리극본」 사자의 편지 225

실종 265